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동향" 특집호 발간에 즈음하여

논문은 기술의 설계와 검증, 특허는 기술의 소유권 보장, 표준은 기술의 홍보와 같이 그 특징을 분류할 수 있다. 표준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 선점을 위한 기업의 활동이 왕성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중국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양적인 확대를 하면서, 그 질이 점점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민간에게 위탁한 표준의 활동을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수년 전부터 보이고 있다. 한국은 표준의 혜택을 받는 국가에서 표준을 보급하는 위치로 전환을 하였으며,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탄생하고, 이에 대한 정보보호 메카니즘도 발 빠르게 고안되고 있음을 국제표준화 현장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한국도 AI/ML, 메타버스, IMT 2030(6G), CBDC, STO, 자율주행, Zero Trust, Supply chain 등과 연계한 정보보호 표준개발을 위하여 국내의 역량을 한층 모우고 있다. 본 특집호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표준전문가들의 주요 활동무대인 ITU-T SG17(Security), ISO/IEC JTC 1/SC27(Information security, cyber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ISO TC307(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TU-R WP5D(IMT Systems) 등의 국제표준화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ITU-T SG17에서는 차기 회기(2025-2028)의 구조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양자암호, 차량통신 보안 관련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ISO/IEC JTC1/SC27에서는 암호기술, 적합성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표준화와, ISO/TC 307에서는 탈중앙 신원관리, NFT 및 감사 표준, ITU-R WP5D에서는 IMT 2030(6G) 통신시스템에 대한 지능형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원고를 집필해 주신 집필자분들과 편집에 수고해 주신 학회지 편집 위원회, 그리고 학회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8월

ETRI 사이버보안연구본부 전문위원 나재홍